

국제 안전보건동향

Global Trends on Safety and Health at Work

[2017. 12. 22]

Vol.
443

<목 차>

1. 호주, 2016년 기준 산업재해 통계 발표	1
2. 노동자 업무환경 웰빙을 위한 영국의 노력	8
[별첨] 국외 단신	1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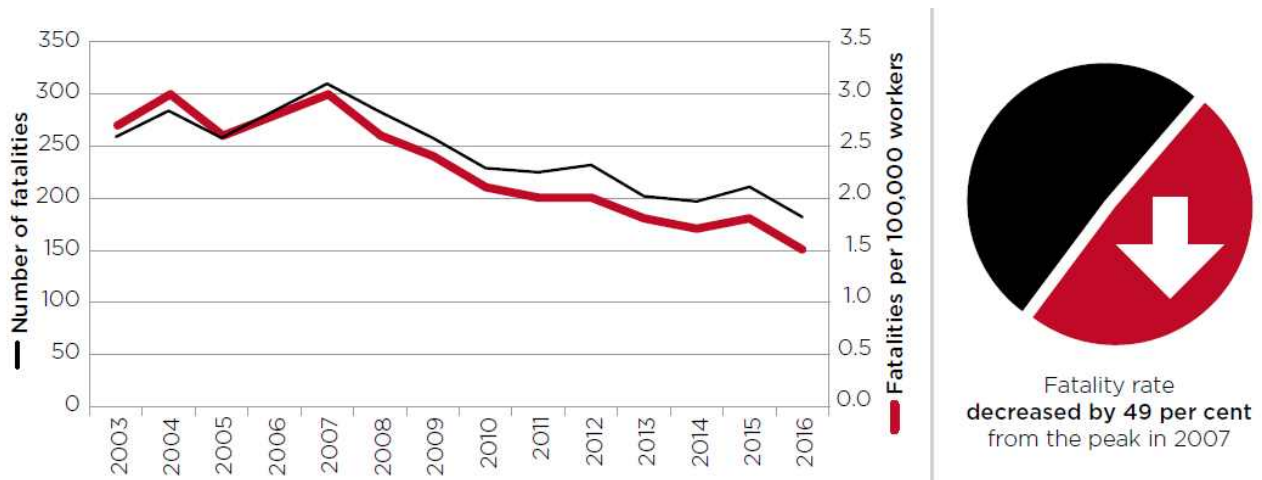


'16년 기준 사망자는 182명이며 업무상사고 사망십만인율은 1.5, '07년 대비 49% 감소¹⁾
 - '14/15년 기준 업무상사고 및 질병 발생률은 '05/06년 대비 29% 감소

□ 업무상 사망사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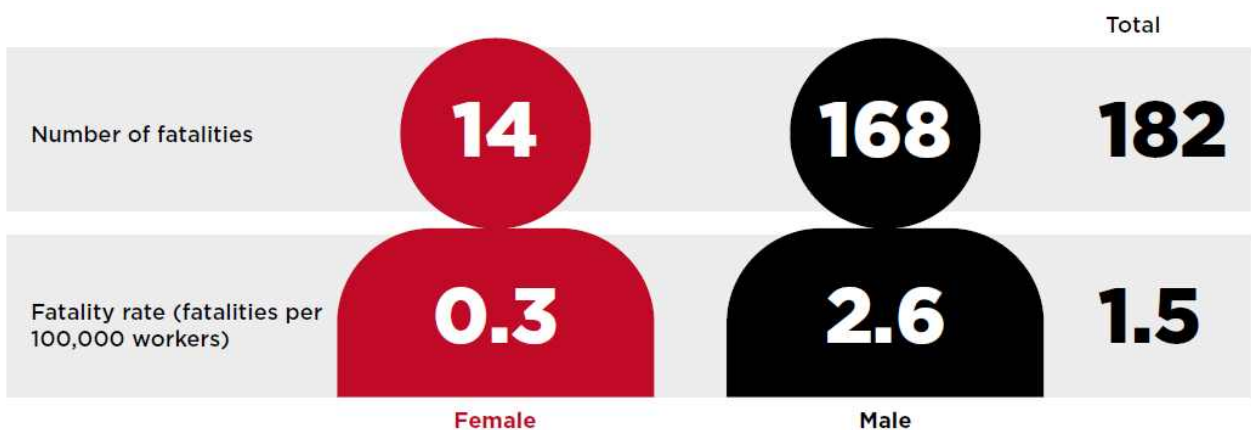
○ 최근 14년간 사고사망십만인율(이하 “사망률”)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'16년 사망률은 가장 높았던 '07년 대비 49% 감소한 1.5로 나타남

* 질병, 자연재해, 자살, 범죄로 인한 사망자는 제외



[그림 1] 2003-2016 사망자수 및 사망십만인율 추이

○ 여성대비 남성 사망자가 높음(92% 점유)



[그림 2] 성별 사망자수 및 사망십만인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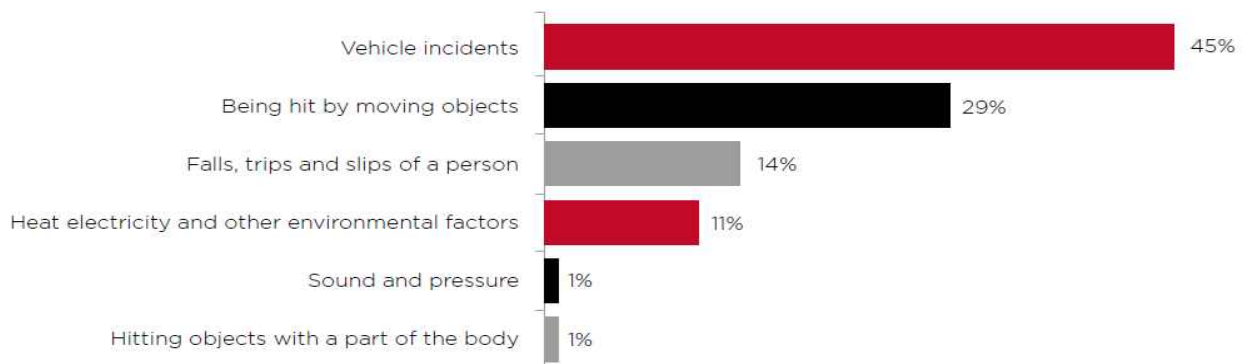
1) 출처 : Key Work Health and Safety Statistics Australia 2017

- 연령별로는 55세 이상 장년 근로자의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 - 55-64세와 65세 이상 연령대의 사망률은 각 2.6, 5.3으로 나타남

Age group (years)	Number of fatalities	Fatality rate (fatalities per 100,000 workers)
less than 25	14	0.8
25-34	33	1.2
35-44	24	0.9
45-54	41	1.6
55-64	46	2.6
65 and over	24	5.3
Total	182	1.5

[그림 3] 연령별 사망자수 및 사망십만인율

- 발생형태는 차량 관련(45%), 움직이는 물체에 부딪힘(29%), 떨어짐 등(14%), 전기열 및 기타 환경요인(11%), 소음 및 압력(1%) 순으로 나타남



[그림 4] 발생형태별 사망자 분포

- 직종별 사망률은 기계조작 및 운전(8.2%), 육체노동(3.4%), 관리자(1.6%) 순으로 나타남



[그림 5] 직종별 사망십만인율

- 산업별 사망률은 농림수산업(14.0%), 수송·우편·창고업(7.5%), 전기·가스·수도·쓰레기 처리업(5.8%) 순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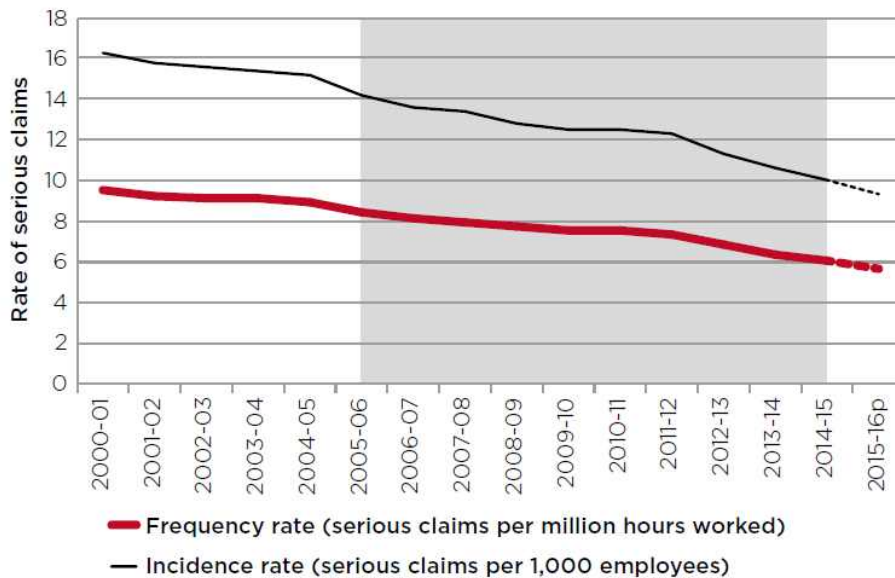


Industry of employer	Number of fatalities	Fatality rate (fatalities per 100,000 workers)
Agriculture, Forestry and Fishing	44	14.0
Transport, Postal and Warehousing	47	7.5
Mining	6	2.7
Construction	35	3.3
Arts and Recreation Services	5	2.2
Electricity, Gas, Water and Waste Services	8	5.8
Administrative and Support Services	8	1.8
Manufacturing	6	0.7
Other Services	4	0.8
Public Administration and Safety	5	0.7
Wholesale Trade	0	0.0
Rental, Hiring and Real Estate Services	2	0.9
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s	0	0.0
Retail Trade	4	0.3
Professional,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	1	0.1
Education and Training	2	0.2
Health Care and Social Assistance	4	0.3
Information Media and Telecommunications	1	0.5
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	0	0.0
Total	182	1.5

[그림 6] 업종별 사망십만인율

□ 업무상 사고 및 질병

- 1주일 이상 휴업재해(이하 “중상 재해2”)율은 지난 10년간 지속 감소
 - '14/15년 기준 중상재해율은 '05/06년 대비 29% 감소



The Australian serious claim frequency rate
dropped by 29 per cent
from 2005-06 to 2014-15

[그림 7] 10년간 심각수준 재해

○ 업무상 사고 및 질병 통계 요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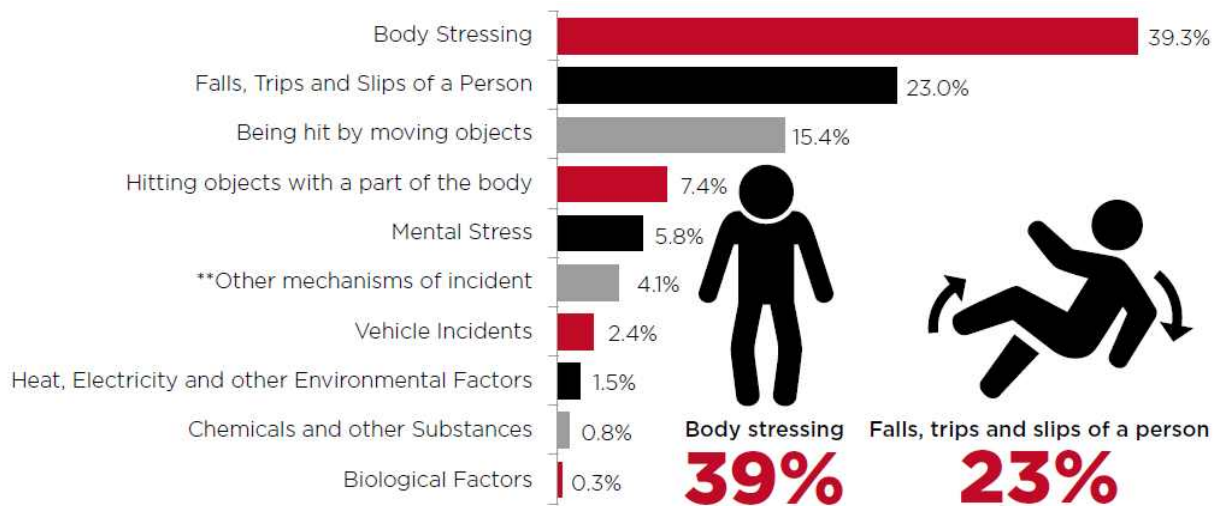
- 백만 근로시간당 중상재해율은 5.6, 주당 근로 손실시간은 5.2, 사고당 보상금액은 \$10,800(900만원)



[그림 8] '15/16년 산재통계 요약

2) serious clai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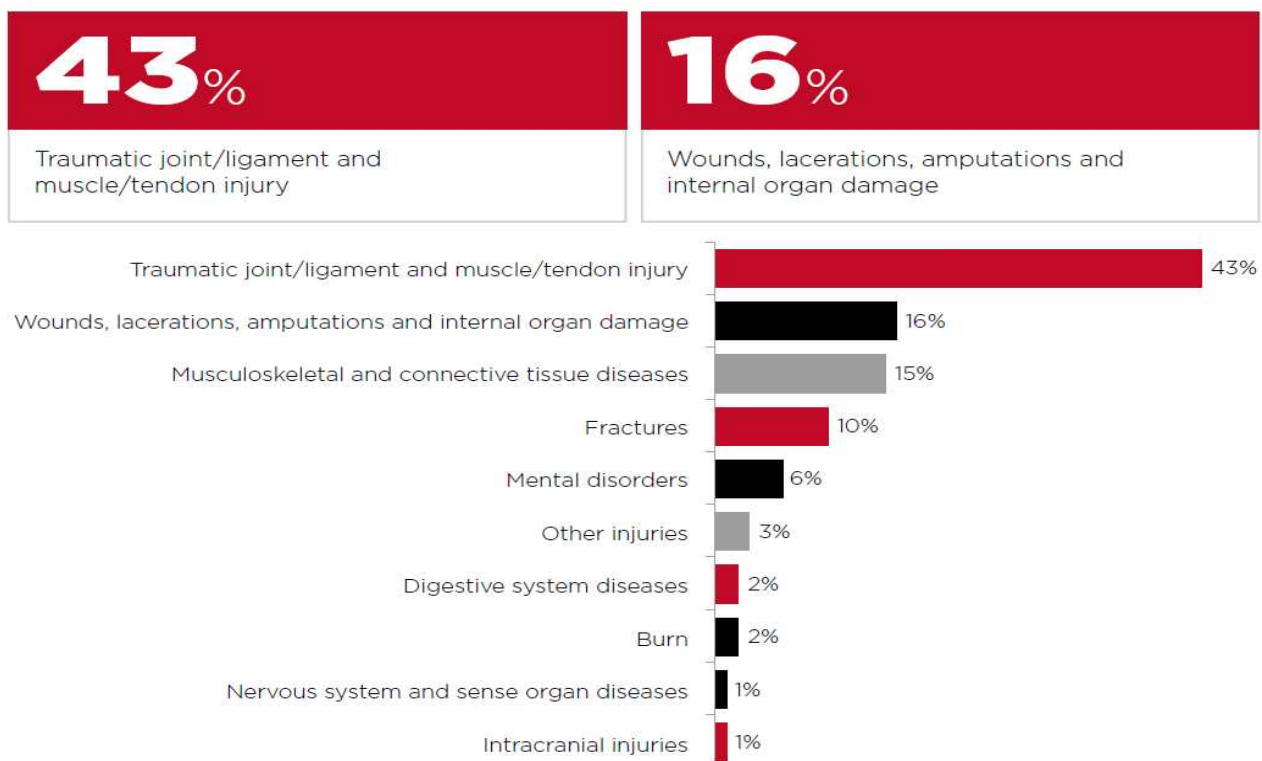
- 발생형태로는 신체손상(39.3%), 떨어짐·넘어짐·미끄러짐(23%), 움직이는 물체에 부딪힘(15.4%), 업무상 스트레스(5.8%) 순으로 나타남



** Other mechanisms of incident include sound and pressure, other multiple mechanisms of incident, roll over, slide or cave-in and unspecified mechanisms of incident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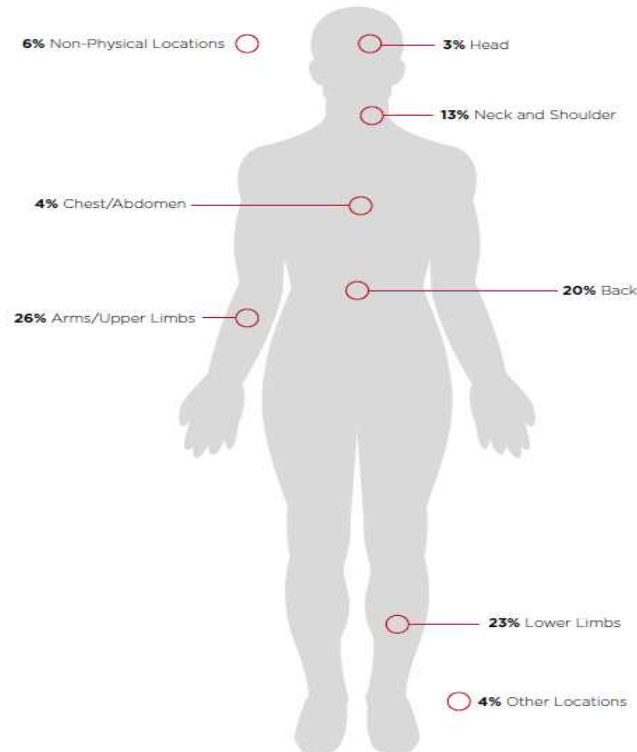
[그림 9] 발생형태별

- 사고·질병 유형별로는 외상성 관절/인대 및 근육/힘줄 관련 재해(43%), 절단/부상/장기손실(16%) 순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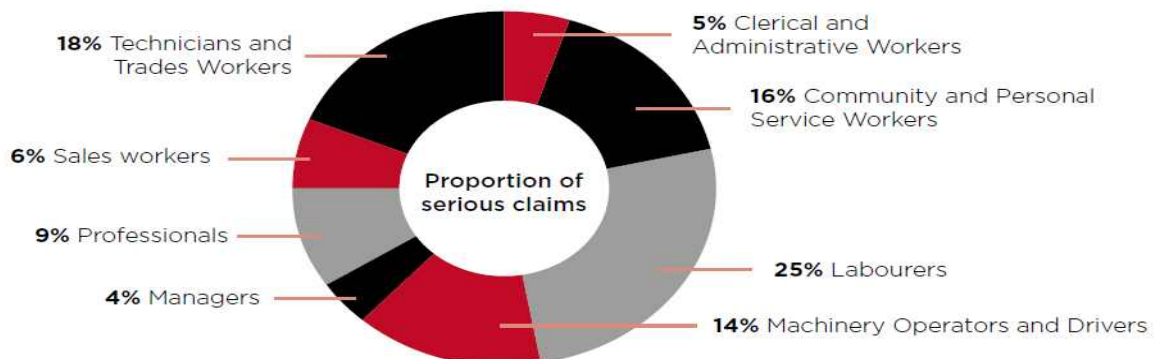
[그림 10] 사고·질병 유형별

○ 신체부위별로는 팔(26%), 다리(23%) 순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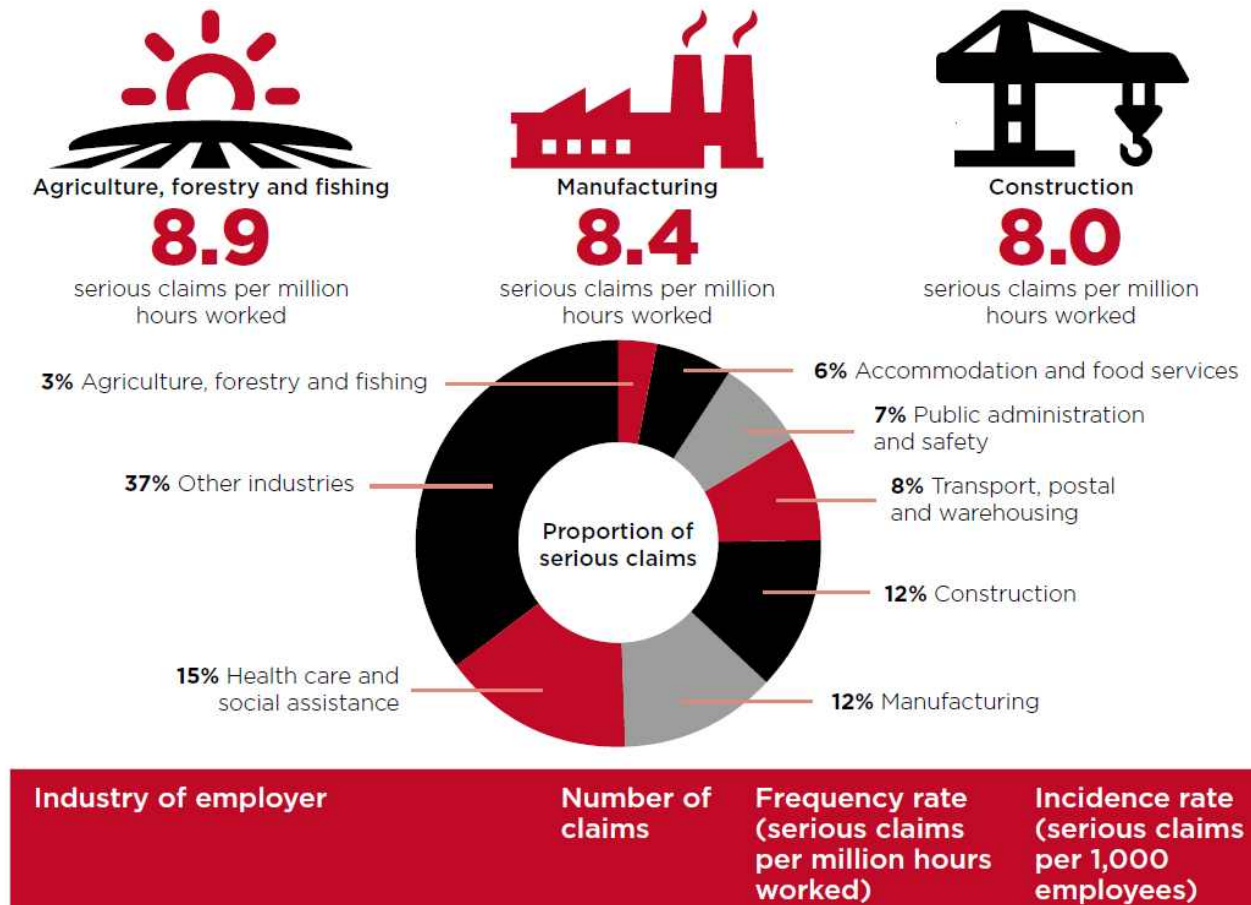
[그림 11] 신체부위별

○ 직업별 중상재해율은 육체노동(17.7), 기계조작 및 운전(11.1) 순으로 나타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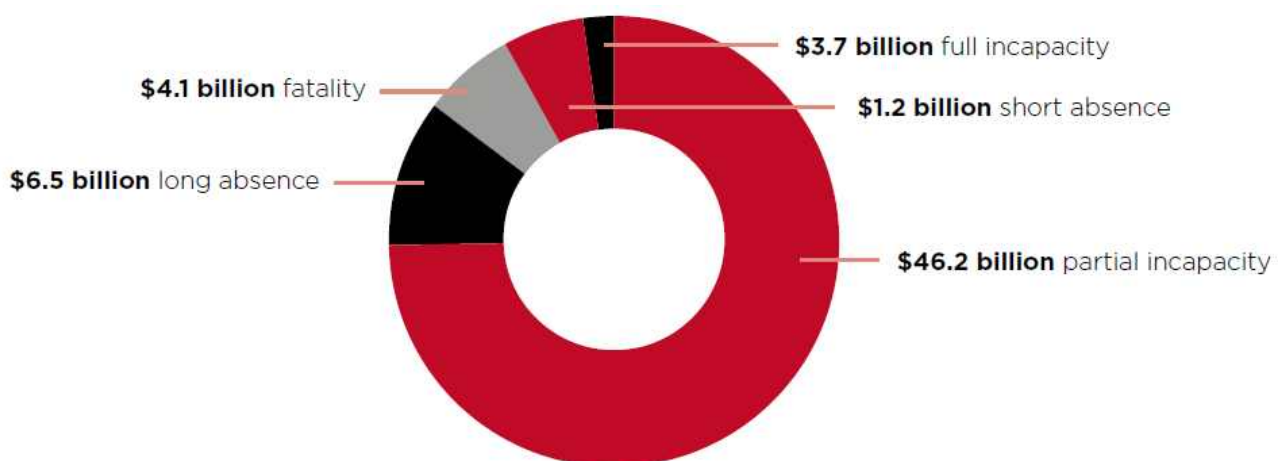
[그림 12] 직업별 중상재해율

- 업종별 중상재해건수(백만근로시간당)는 농림수산업(8.9), 제조업(8.4) 순으로 나타남



[그림 13] 업종별 중상재해건수

- '12/13년 기준 업무상 사고 및 질병 비용은 \$618억(51조원)으로 '08/09년 대비 2% 증가
 - 신체일부 결함(\$462억), 장기결근(\$65) 순으로 점유



[그림 14] 업무상 사고 및 질병 비용발생 형태

영국, 업무환경이 생산성이나 정신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조명하고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노동자 지원 중요성 강조

- 이달 초 영국심리사회학회(BPS)³⁾에서 발표한 보고서 ‘일의 심리학 : 작업장 웰빙과 생산성 향상’은 노동자의 작업 환경, 실업자를 위한 복지 시스템과 국민의 정신건강 간 상관관계를 조명함
 - 심리학적으로 건강한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 사업주에게 작업장 환경을 고려한 대책 (evidence-based intervention) 도입을 권장
 - 업무 분장, 업무 강도 모니터링과 작업환경(웰빙) 향상에 노동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주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
- 본 보고서의 저자인 사포드대학교 Ashley Weinberg 부교수는 사람이 일을 할 때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

“대다수의 사람들이 직업으로 자신을 정의합니다. 일은 사회정체성 구축에 중요한 요소며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. 연구에 따르면 일하는 사람은 심리적 건강 문제를 겪는 비율이 낮습니다.”
- 영국심리사회학회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정신적으로 건강한 웰빙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 영국안전보건청의 스트레스관리기준⁴⁾과 영국국립임상보건연구원⁵⁾의 관리자 지침서⁶⁾를 준수할 것을 권고

HSE 관리기준 - 스트레스(Management Standards - Stress)

-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우수 사례 등 권고 사항 제공
- 업무 설계에 필요한 여섯 가지 주요 분야(수요, 조절, 지원, 관계, 역할, 변화)를 설명

NICE 관리자 지침서

- 지침서는 작업장 웰빙을 결정하는 경영진의 역할과 노동자가 본인 업무를 계획하도록 더 많은 권한을 줄 필요성 등을 설명

3)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(BPS)

4) Stress Management Standards

5)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 (NICE)

6) Workplace health: management practices(NG13)

○ 또한 정신적·육체적 건강 문제나 장애가 있는 노동자는 사업주 및 동료의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

- 제대로 설계되지 않은 업무, 비계획적인 일, 위험한 작업 환경은 정신 건강 문제를 야기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음

○ 한편 BPS는 영국 노동자의 약 10%가 '신경다양성'을 겪고 있다고 추정하고 사업주는 이러한 노동자를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

- 신경다양성*은 근로자의 사고력, 집중력, 기억력 및 충동억제력에 영향을 미치며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가벼운 증상에서 투렛증후군**과 같은 심각한 증상까지 다양함

*신경다양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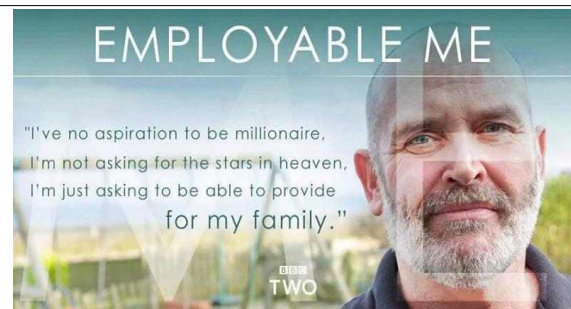
- 1990년 자폐를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용어로 자폐증, 난독증, 사회 불안증 및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(ADHD)등의 증상을 아우름

**투렛증후군

- 얼굴 찡그림, 코·안면·머리 경련, 발구름 등 틱 증상과 함께 반복되는 무의식적 행동에 의해 특성화된 신경장애가 나타나는 유전병

- 영국 BBC2 방송은 11월 27일부터 연속기획시리즈 '아직 일할 수 있는 나 (Employable me)'를 방송. 뇌졸중을 겪은 뒤 투렛증후군과 같은 신경다양성 문제를 겪고 있는 8명의 삶을 조명

· 사업주나 동료의 도움이 뒷받침 되면 신경다양성을 겪고 있는 노동자도 충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



8)

<시 사 점>

◇ 최근 영국에서는 작업장 웰빙이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기 시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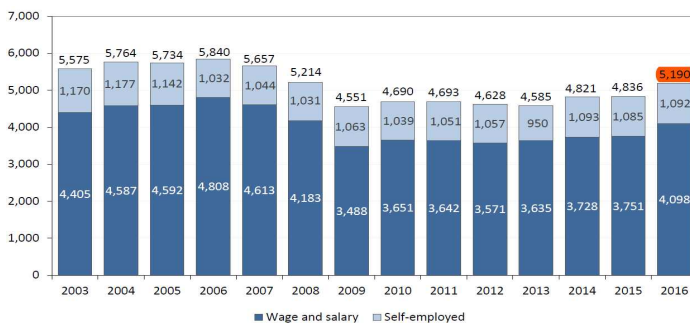
- 정신 건강 장애 극복을 위해 사업주와 동료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업장에서 이를 고려한 건강 증진 활동 전개 필요

7) 출처 : <http://mediasr.kr/archives/37743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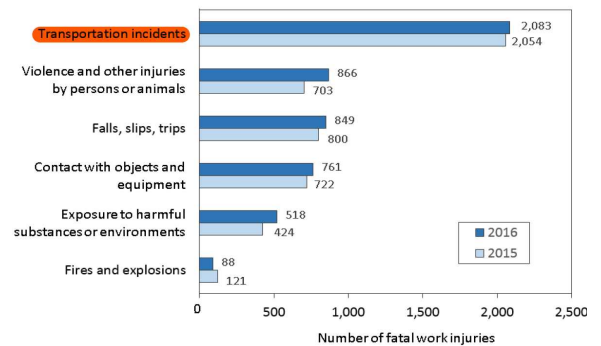
8) 사진출처 : 구글(<http://patienttalk.org/employable-me-take-part-in-a-tv-show-helping-people-on-the-autism-spectrum-find-employment/>)

□ 미국 노동통계청, 2016년 산재사망사고에 관한 데이터 발표⁹⁾

- 미국 노동통계청¹⁰⁾의 2016 산재사망사고 데이터에 따르면 2016년 산재사망자는 5,190명(3.6명/정규직노동자 10만명당)으로 전년(4,836명, 3.4명) 대비 7% 상승 - 3년 연속 상승세 유지, 2008년 이후 **가장 높은 수치**
 - 자영업¹¹⁾자의 사망률은 전체 산재사망사고의 약 20% 차지 [그림1]참조
- 사고 유형별로는 운송재해¹²⁾ 40%(2,083건), 직장 폭력 및 사람 또는 짐승에 의한 부상 23%(866건) 순으로 나타남
 - ※ 사망자 4명중 1명은 운송재해로 인해 사망
 - 유해위험물질 및 유해작업환경에 대한 노출 재해는 전년대비 22% 증가
 - 화재 및 폭발 재해는 전년대비 27% 감소 [그림2]참조



[그림 1] 2003~2016 산재사망자수



[그림 2] 사고 유형별 재해자수

- 노동자의 마약성 제제 과다복용은 전년대비 32%(165건 → 217건) 상승
 - 트럼프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‘국가 공중 보건 비상(National Public Health Emergency)’을 선포, 관련 부처 및 개선 방안 마련
 - 미국산업안전보건청(OSHA)은 법 집행, 법률 준수 지원,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해 문제 개선 방안 지원 예정

※ 본 자료 및 출처(URL포함)는 저작권 등의 문제로 인해 원본자료의 제공이 어려울 수 있으며, 웹사이트 기사를 주로 사용하므로 추후 웹사이트 링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.

※ 국제산업안전보건동향은 이메일을 통한 정기 구독이 가능합니다. 신청 및 관련 사항은 국제협력센터 (052-7030-746)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

청렴한 KOSHA가 안전한 일터를 만듭니다.

9) 글·그림 출처 : <http://www.osha.gov/news/newsreleases/trade/12192017>

10) Bureau of Labor Statistics, U.S. Department of Labor

11) Self-employed workers

12) Transportation Incidents